

만화로 보는
인천 민주화운동
이야기



책을 내면서

민주화운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운동을 의미합니다.

크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승만 장기집권에 저항한 4.19혁명,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저항한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인천도 5.3민주항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민주화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동참하여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2019년에 「인천민주화운동사」를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만화 형식으로 꾸민 「민주주의는 바로 너야」를 제작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다 보니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자세한 활동상 등은 축소 압축하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선인 발행 「인천민주화운동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결코 짧지 않은 역사에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도와 정치권력에 맞서 저항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보듬고 가꾸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는 5공화국 정권 들어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이 발발하였고 이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멀리 볼 것 없이 바로 2016년 겨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수많은 장소에서 '대통령 퇴진' 등을 외친 시민들의 행동이 바로 민주화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노력 그리고 고귀한 생명까지 바쳐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생생하게 깨닫고 이 고귀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더욱 알차고 진전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2021년 12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오 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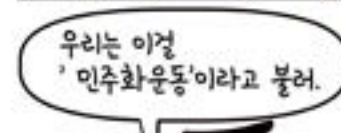


1. 민주주의는 바로 너야	07
2. 이승만은 물러나라!	21
3. 우리도 인간이다.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 사건	32
4. 박정희 군사정권과 저항	41
5. 동일방직 노동조합, 여성노동운동의 깃발을 들다	53
6. 오월의 노래	70
7.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깃발을 들다	86
8. 가자 인천으로. 인천 5·3민주항쟁	100
9. 호헌철폐, 독재타도! 6월민주항쟁	116
10. 미완의 민주주의	131
11.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141

1. 민주주의는 바로 너야.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라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모직 한가닥 있어
라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서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벼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 남 몰래 쓴다

라는 목마름으로
라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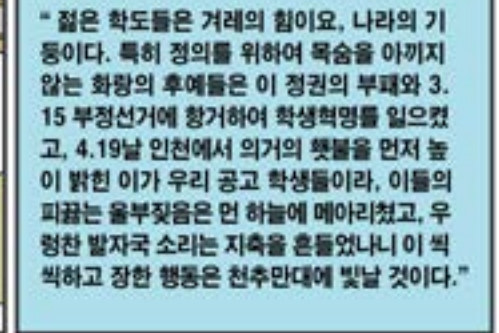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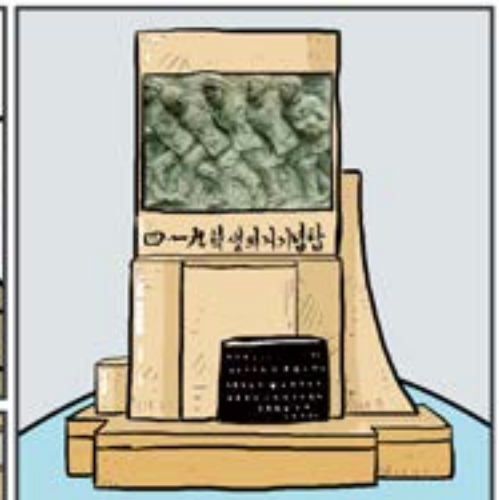


















가톨릭노동청년회: 1925년 카르텔 추기경이 설립한 노동자 대상의 사목운동단체









〈유신헌법 내용〉

대통령직선제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로 간접선거,
국회의원 정원 1/3 대통령 추천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출,
대통령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법관 임명권, 대통령 임기6년제
및 연임제한 철폐





앰네스티 인천지부



앰네스티 인천지부는 김지하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긴급조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우재 환영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 대중강연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1980년대 인천민주화운동의 주축이었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의 모태가 되었다.



인민혁명당사건(인혁당사건)



1973년 김대중납치 사건으로 유신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자, 박정희는 1974년 긴급조치 4호를 공포하고, 1000명이 넘는 학생, 민주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사건을 조작하여 1975년 4월 8일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4월 9일 새벽 사형선고가 난 지 겨우 18시간에 전원을 사형시켰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자 인권 탄압의 사례이다.

2005년 12월 사법부는 인혁당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6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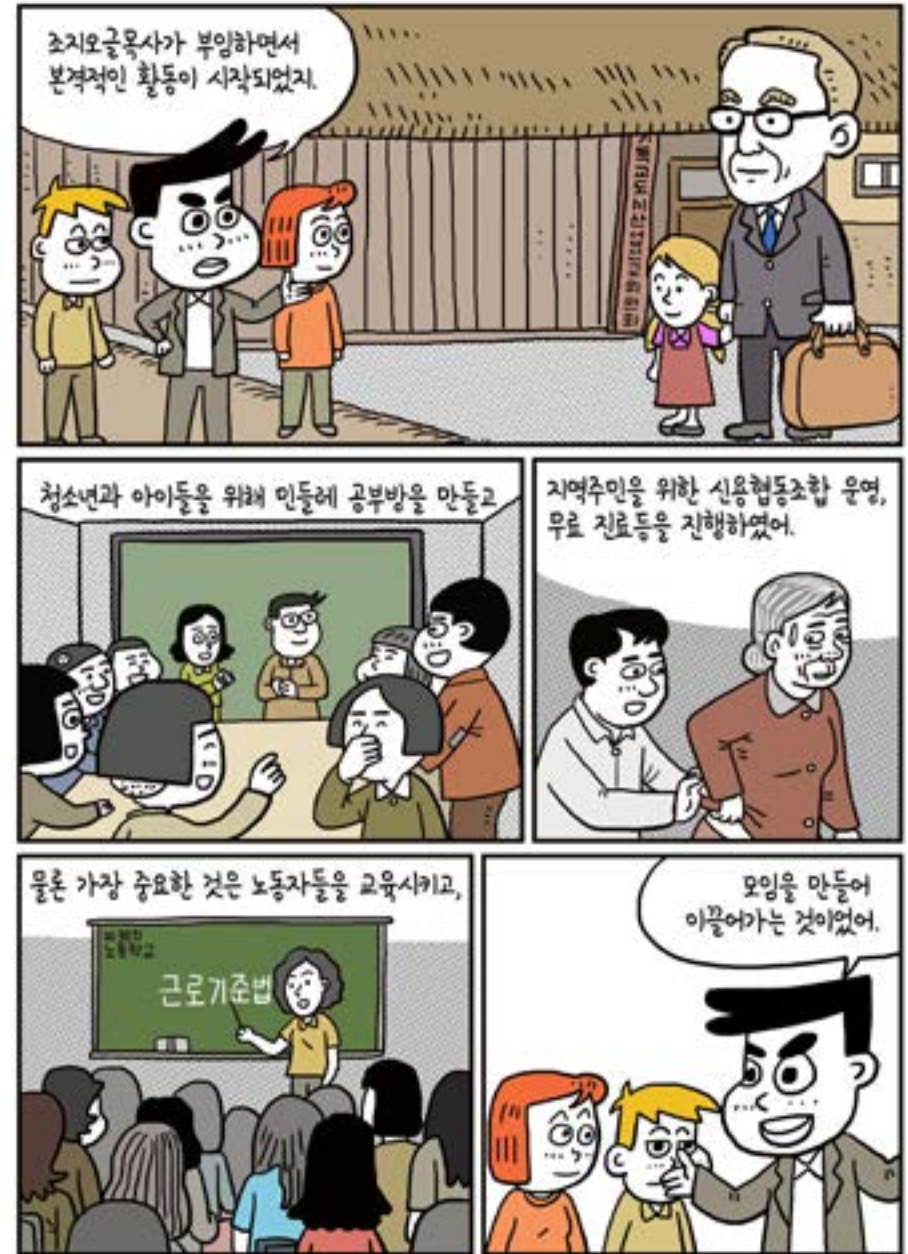




어느 돌맹이의 외침 <유동우 저>



<어느 돌맹이의 외침>은 1970년대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청년들은 이 책을 읽고 노동 현장에 들어갔다. 전두환 정권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1970년대 삼원섬유 유동우 위원장이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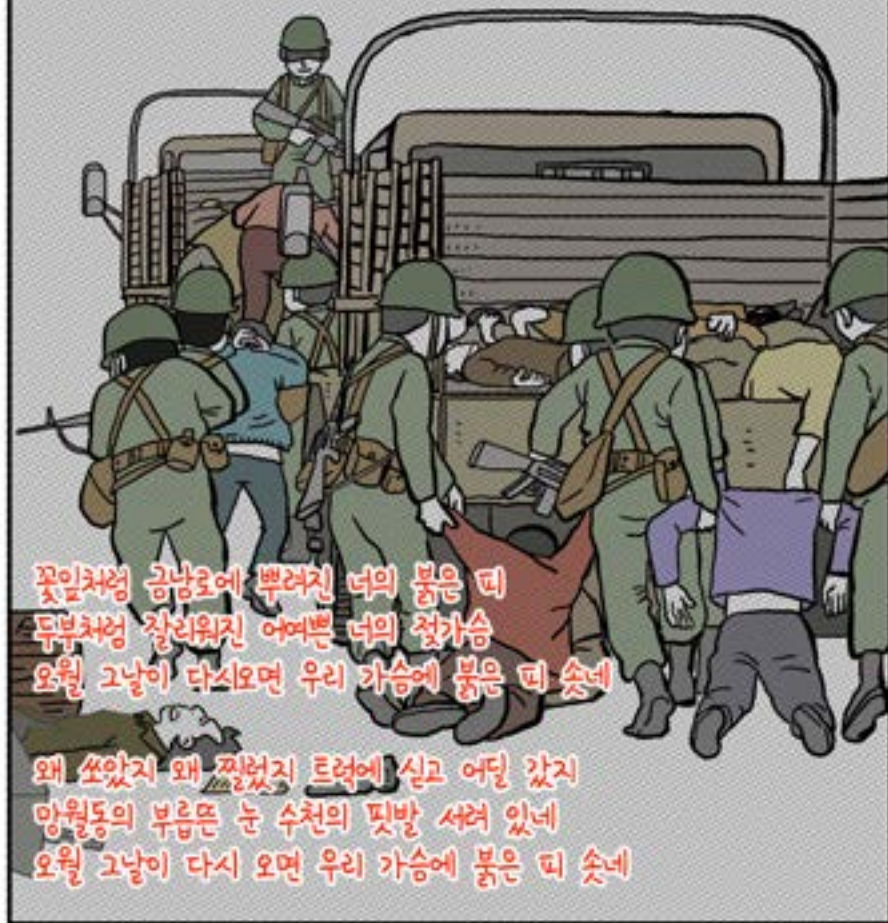
내가 옷을 벗다니! 그것도 많은 남자들 앞에서!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끔찍하면서도 놀라울 뿐이다. 부끄러운 걸 따지자면 벗은 우리보다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그놈들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통일방직 여성 노동자의 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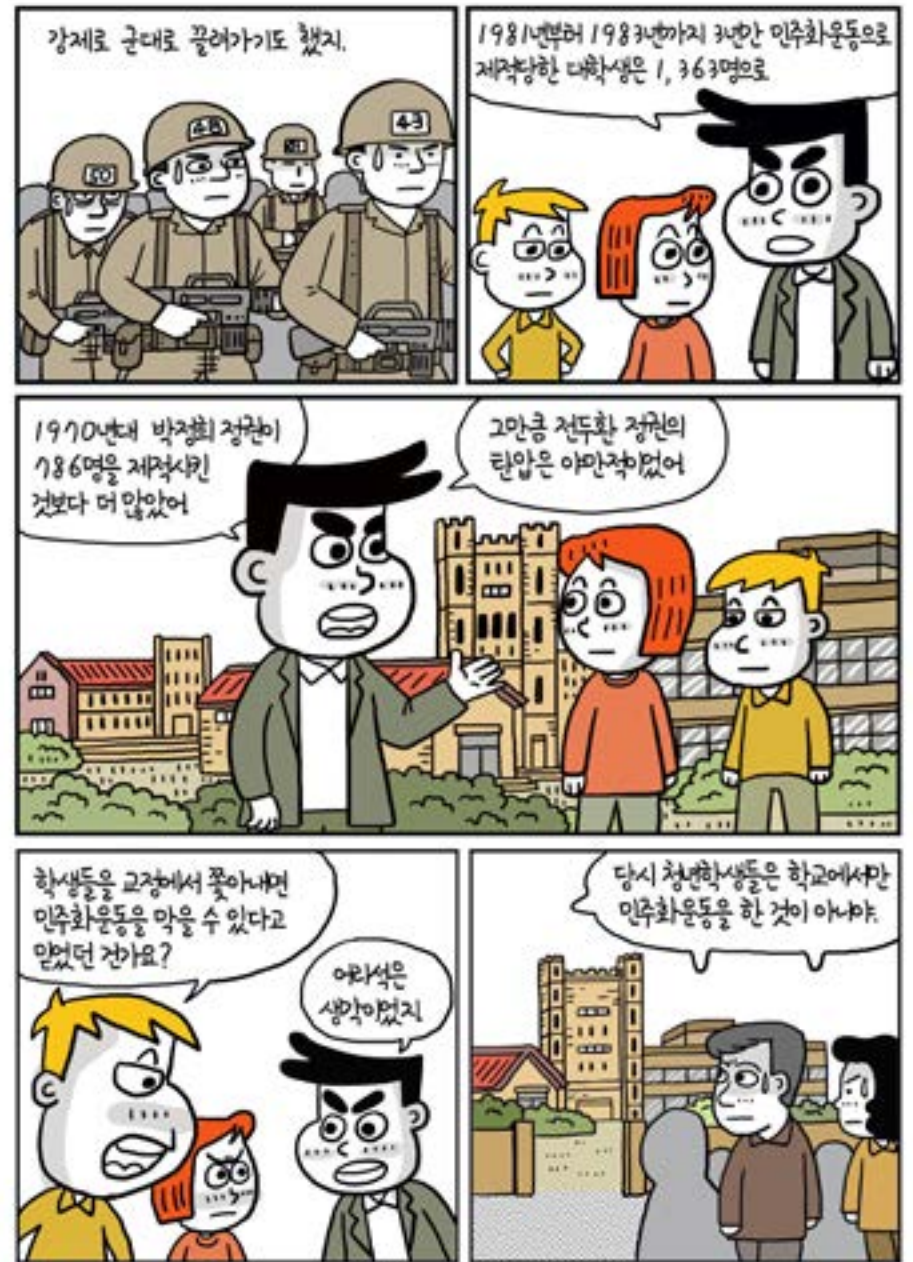
6. 오월의 노래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느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데
제제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짝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느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제제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짝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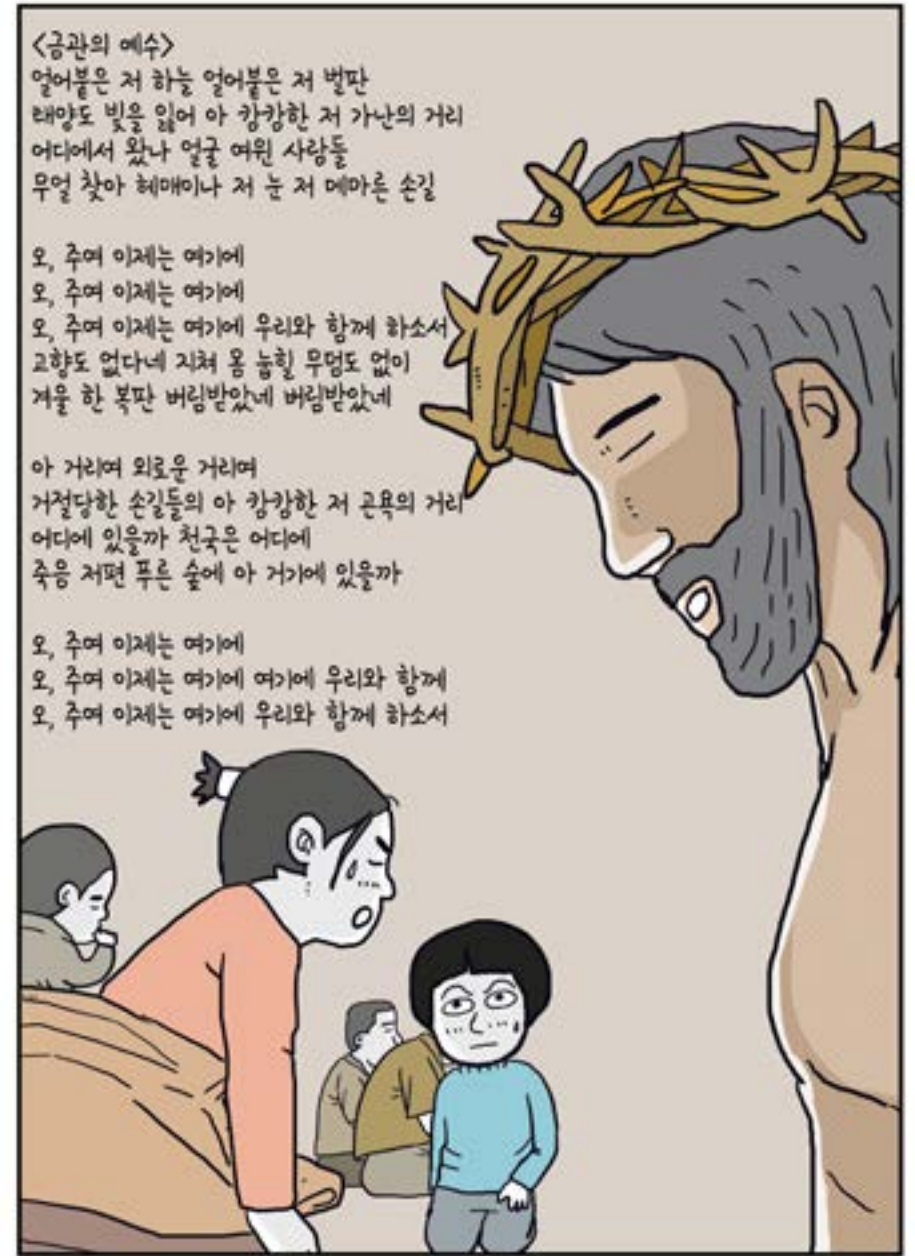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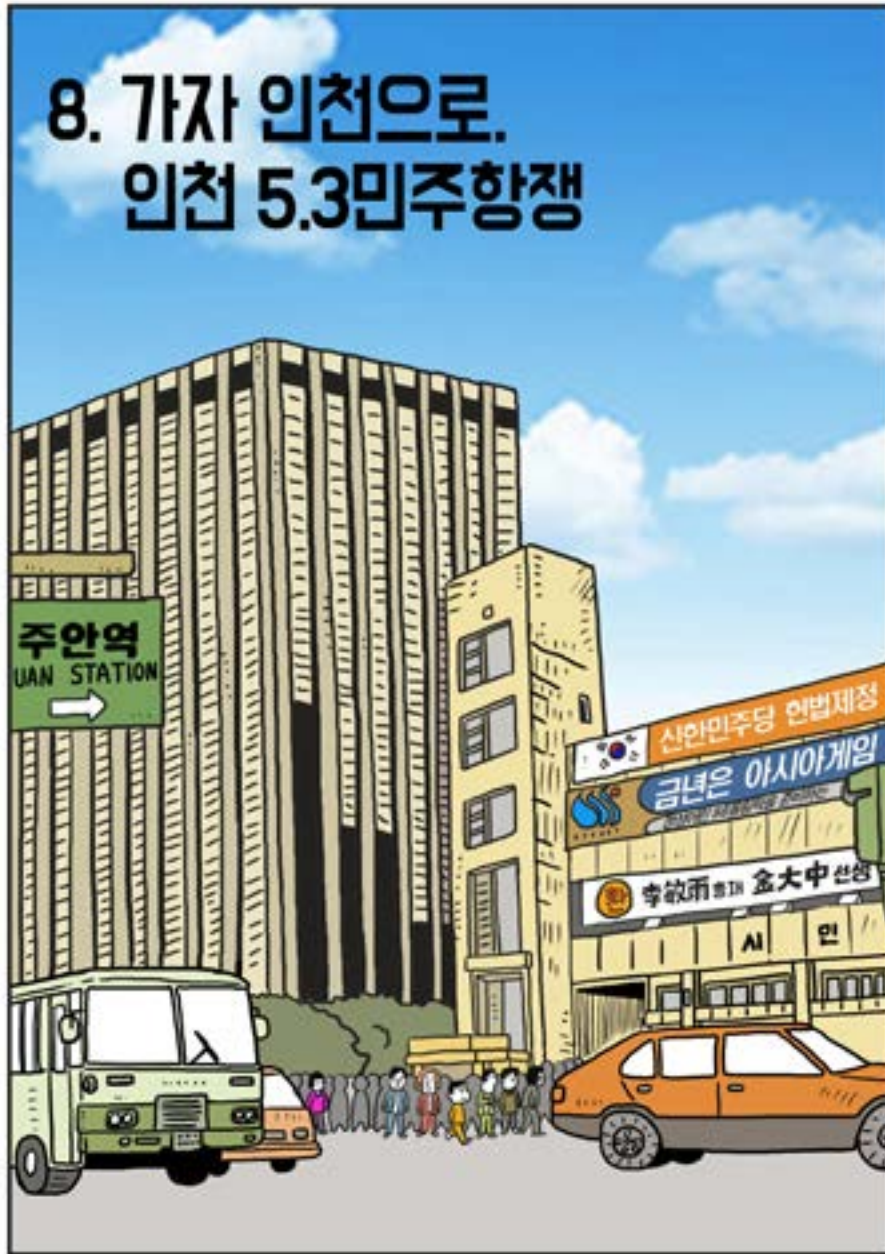
















억눌렸던 민심이 허져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시위에 동참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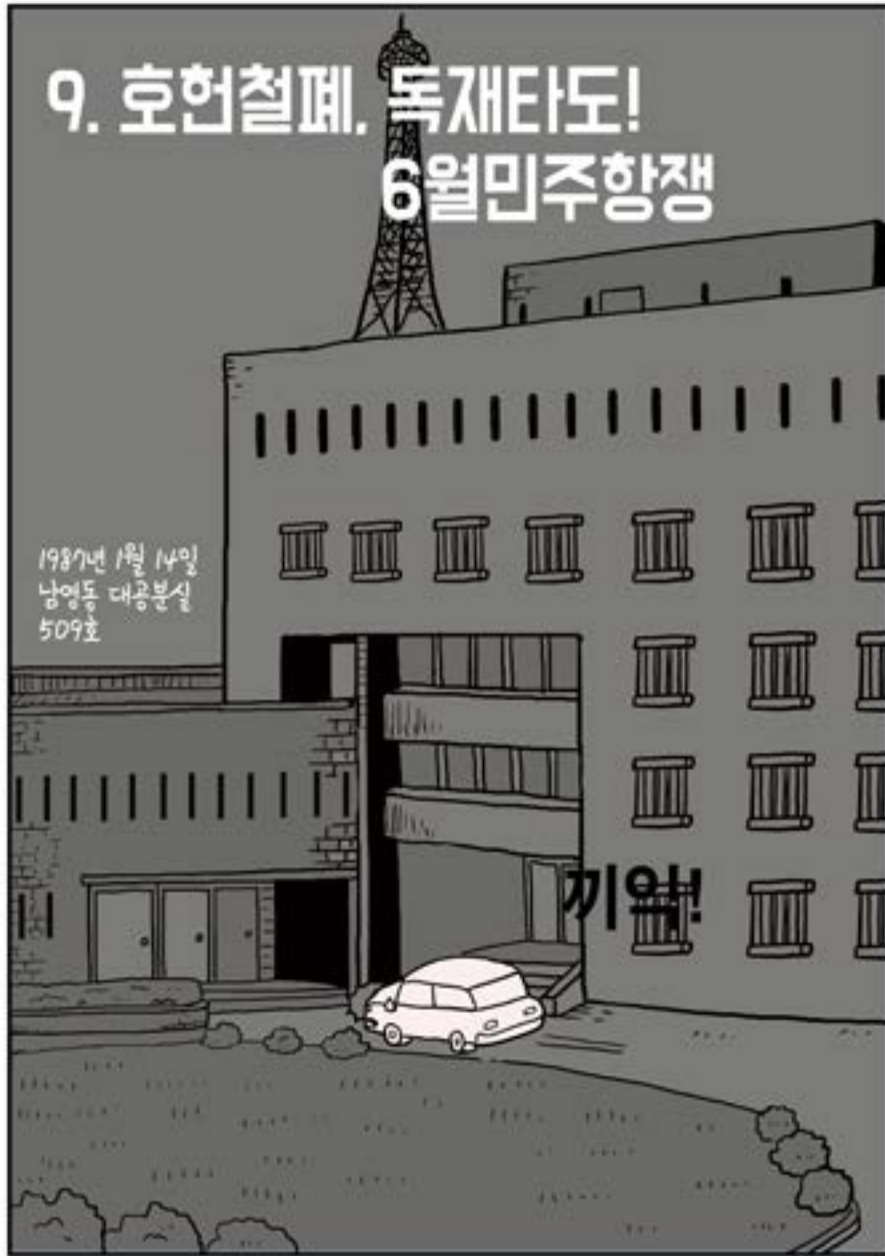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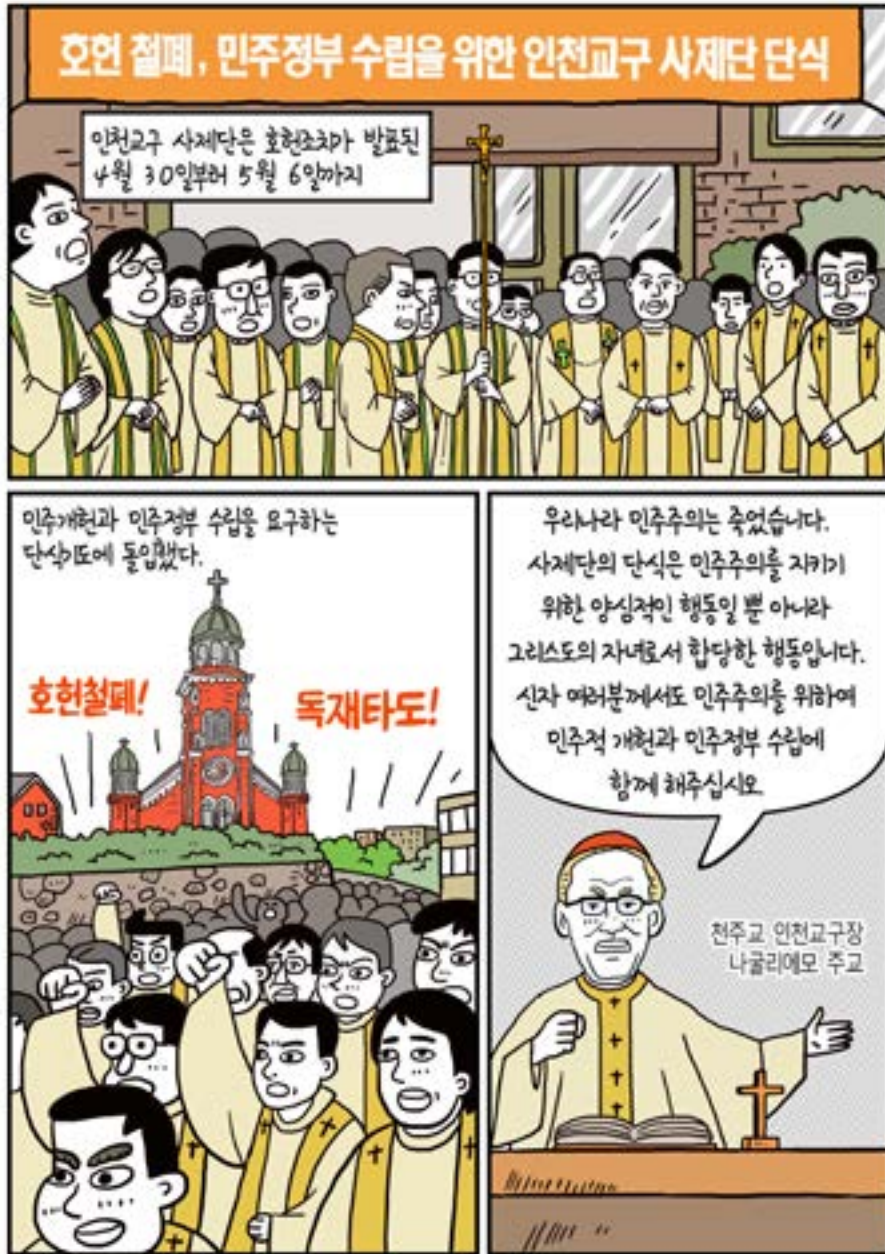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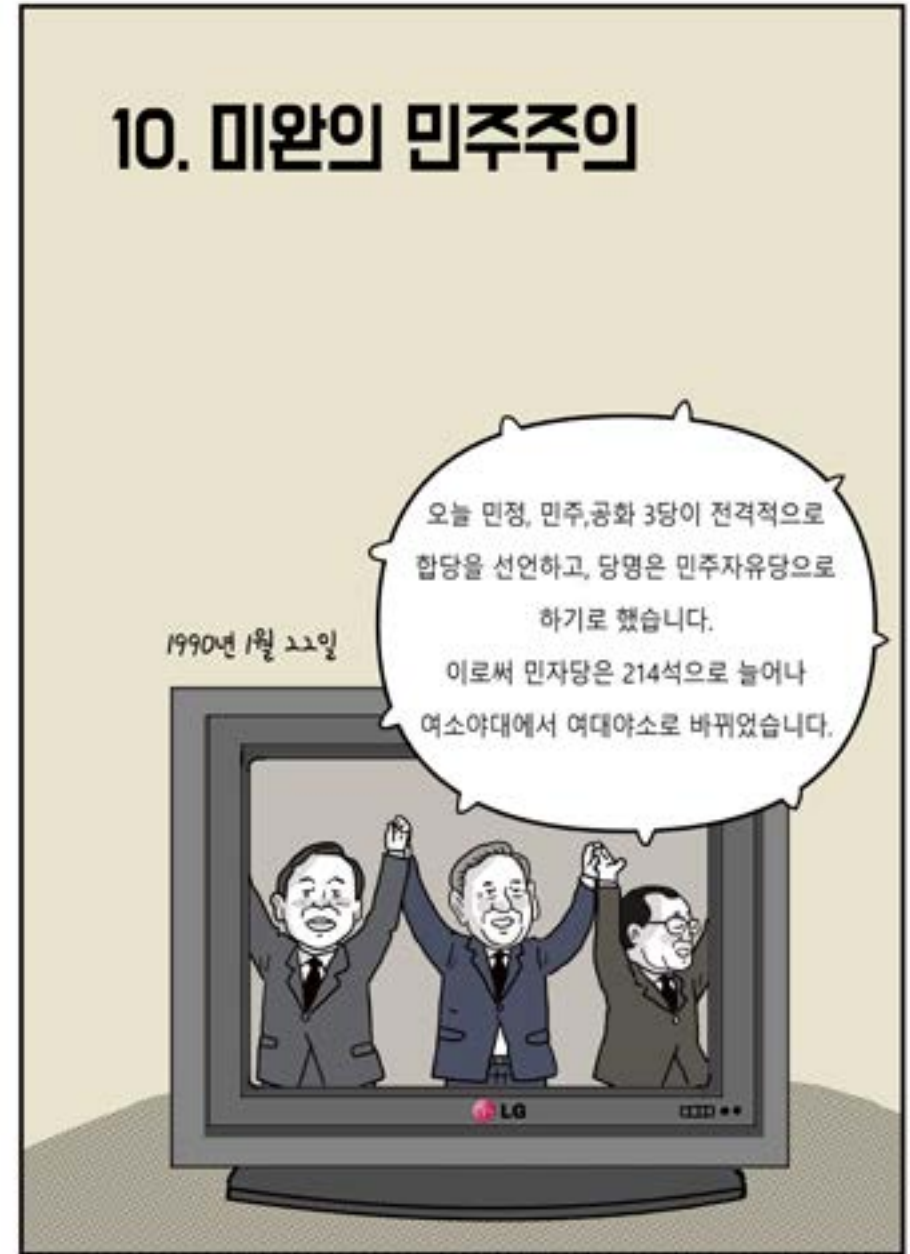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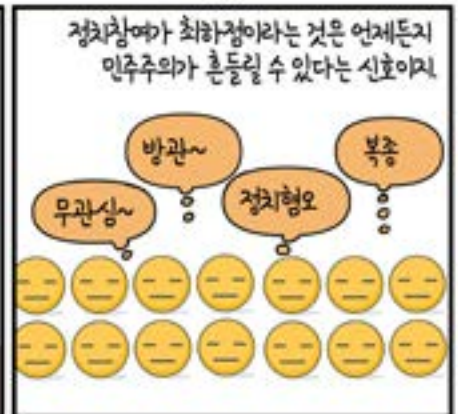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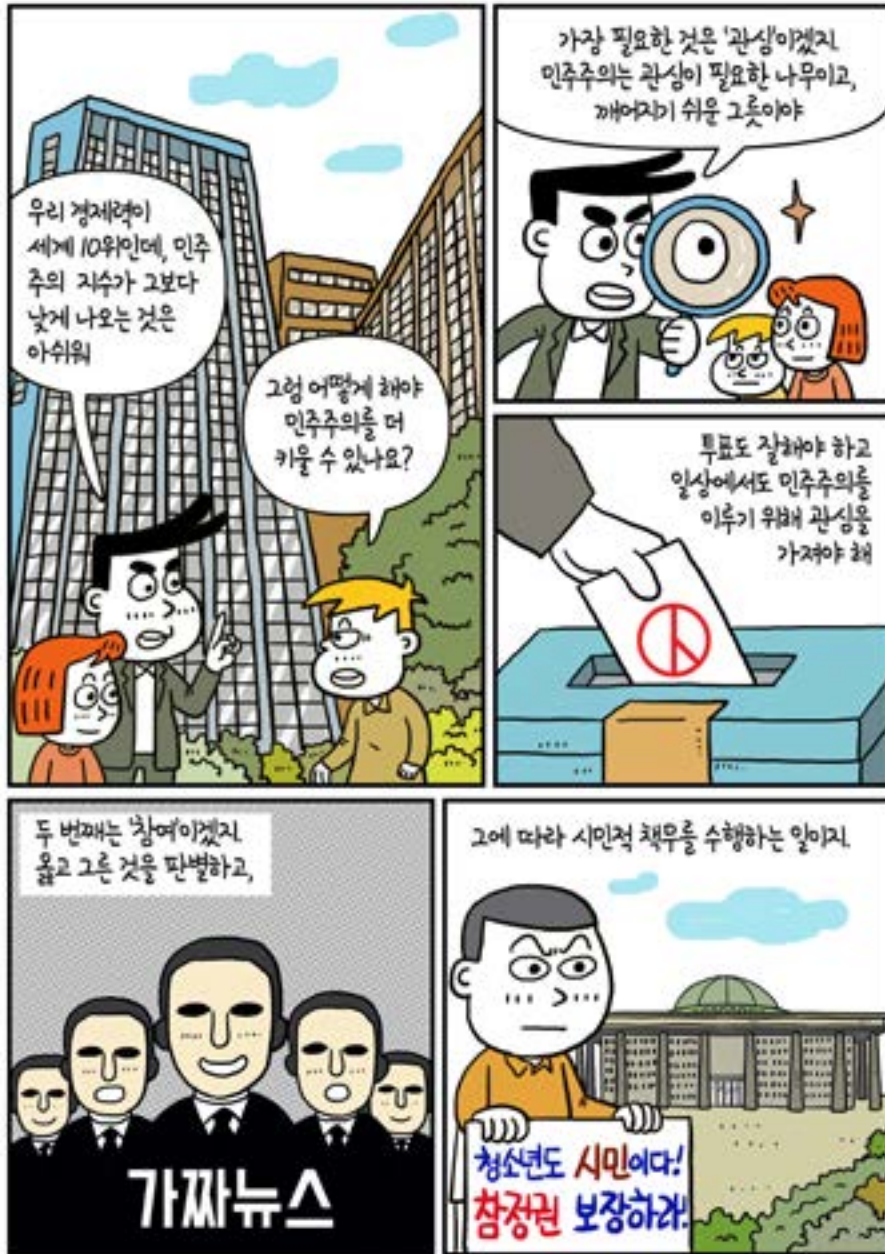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인천 민주화운동 이야기

민주주의는 바로 너야

초판 발행 / 2021년 12월 29일

지은이 / 박홍열

펴낸이 / 오경중

펴낸곳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78 402호

tel. 032+862+5353 / fax. 032+862-5352

e-mail, idph@daum.net

비매품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